갑신정변(甲申政變)

1. 요약

2. 개요

4. 정변 이전의 상황

그러던 중 조선에서 발생한 1882년 임오군란은 중전 민씨(명성황후)의 수구당과 급진 개화파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였다.

임오군란으로 청에 간 사신들은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 청나라는 조공국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을 움직였고, 청의 도움으로 세력을 회복한 민씨 세력은 청나라의 눈치를 보게 됐다. 청나라는 묄렌도르프(외교), 위안스카이(군사), 마젠창(재정) 등 고문을 파견하고, 영약삼단으로 조선의 독자적 외교를 금하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로 청국 상인의 조선 국내 무역이 가능하게끔 하는 등 영향력을 강화해 갔다. 즉 그들이 영국 등의 서구 열강에 당했던 그대로, 기존의 책봉 - 조공 관계를 넘어선 근대식 종주국 - 종속국 관계를 만들려 했던 것.

급진 개화파들은 아편 전쟁, 영토 할양 등으로 청나라가 이미 기울었고, 청나라 식으로는 조선의 미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고종은 개화파들을 원래 아꼈는데, 김옥균과 고종의 매제 박영효 등은 왕의 총애를 믿고 서구식 정책들을 밀어붙이려 했다. 그래서 민씨 척족 중심의 수구당 및 청의 고문 묄렌도르프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개화당이면서도 민씨 척족이기도 했던 민영익 집에서 두 세력이 회담을 가졌다. 묄렌도르프는 새 화폐를 찍자고 주장했다. 개화파는 이미 대원군 때 당백전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었고, 외채가 많은데 돈 가치가 떨어지면 헬조선이 될 거라 주장했다. 마침 일본이 정부 차관을 제공하겠다 약속해왔으니 차관으로 근대화에 충당하자는 의견을 냈다.

고종은 일단 양쪽을 제지시키고 김옥균을 일본에 보냈다. 수구파는 위기감을 느꼈다. 고종을 힐난하는 한편, 일본 공사관에 김옥균이 비자금을 만들려 한다고 흘렸다. 일본은 차관을 취소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일본에 간 김옥균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자기들이 공작을 했으면서 차관에 실패했다며 김옥균과 개화당을 몰아갔다. 김옥균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현재 정독도서관 자리의 자택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아울러 수구파들은 개화당 박영효가 저택을 팔아 마련한 병조 산하 훈련원을 뺏고, 해방영이라는 수도 방위 사령부 개념의 조직을 창설한다. 임오군란의 원흉(?) 민겸호의 아들 민영환의 주도였다.

청나라가 마침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을 치렀다. 한반도 주둔 3천명 중 절반이 동남아 전선에 투입된다. 김옥균과 개화파들은 당시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에게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거사를 서두른다.

7. 삼일 천하

8. 결과

개화 의지는 그렇다 쳐도, 갑신정변은 본질적으로 왕조 국가 조선에서 반역이었다. 그리고 개화파가 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후 조선에서 개화는 곧 반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건 후 조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개화 드라이브는 대부분 정지되고, 이후 대대적인 개혁은 1894년 갑오개혁에 가서야 그것도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개화를 이끌어가야 했을 엘리트 청년 관료들이 조선을 떠나야만 했으니, 그야말로 시계를 10년 뒤로 돌린 개화기 최악의 병크였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윤치호는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서울에서 개화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자가 없었다"고까지 표현했다. 원래 개화라고 하면 듣는 이들 중에서도 그다지 반발하는 이들이 없었는데, 갑신정변이 터지고 나니까 개화하는 사람은 죄다 외세를 끌어들여서 반역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즉, 갑신정변 때문에 개화의 이미지가 개판이 되었다.는 얘기.

참고로 갑신정변에 대한 윤치호 본인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  |
| --- |
| 아아. 김옥균 무리의 경망스러운 행동은 위로 나라 일을 실패하게 하고 아래로 민심을 흔들리게 했으며, 공적으로는 개화 등의 일을 완전히 탕패(蕩敗)시켰고, 사적으로는 자기네들의 가족을 몽땅 망하게 만들었다. 한 번 생각을 잘못해 모든 일이 실패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냐! |

정작 이 말을 한 윤치호는 친일파라는 점에서 나라가 망하자 강대국에 빌붙어먹는 놈이 정작 나라를 한 번 개화시키려는 사람들을 싸잡아 욕하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하는 꼴밖에는 안된다.

정작 옆 나라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개화파의 가족들까지 몰살하고 홍종우에게 암살된 김옥균의 시체를 사지절단하여 조선팔도에 전시하고 양화도에 그의 목을 효수하자, 크게 경악하며 이 나라는 야만국가라며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다. 실제로, 오늘날 기준에서는 조선의 저런 효수방식이 멕시코 카르텔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정변을 통한 전체적 개혁을 꾀한 이들 급진 개화파들 말고도 조선의 전반적 개혁을 추구한 온건 개화파도 통리 기무 아문을 중심으로 개화를 추진하기는 하였다. 김홍집 등을 필두로 하는 이들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사이 10년 동안에도 전신, 전등 설치, 육영 공원(근대적 교육 기관), 광혜원(1885년 제중원으로 개칭), 한성주보 발간 등 일련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다.

이 사건은 일본 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데 당시 도검과 폭약 등의 무기를 조달해서 갑신정변 세력를 지원하며 내란를 선동하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청프전쟁 상황에 따라 일본 자유당 민병대로의 프랑스식 추가 지원이 이토 히로부미의 거부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어도) 갑신정변의 실패와 그 뒤처리 과정의 조선의 연좌제같은 전근대성에 충격을 받고 본격적으로 흑화, 탈아론 등 본격적인 제국주의적 사상을 펼치기 시작한다.

덧붙여 갑신정변의 실패로 천연두의 퇴치도 늦춰지게 되었는데, 국내에 최초로 종두법을 들여온 지석영의 종두 학교는 이때 성난 군중에 의해 불타버렸고, 그는 도피해야만 했다.

9-1. 갑신정변 참여자들의 밝힌 이유

일본 공사였던 다케조에 신이치로는 이렇게 말했다.

|  |
| --- |
| '내가 어리석어 원세개에게 당했다.' |

요약하면, 내가 주도자인데 원세개에게 속았으니 당연히 실패한 것이다. 즉, 갑신정변의 몸통은 자신이란 이야기다.

박영효의 평가

|  |
| --- |
| '(김)옥균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내는 무능한 자야.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탕아지. 도쿄에서 조선인 일본인 할거 없이 닥치는대로 돈을 빌려 물쓰듯 하고 말이지. 결국 갑신년에 실패한 것도 그런 엉터리 때문이지. 그를 믿고 설익은 청년들이 성급하게 일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거지. 그렇다고 옥균이가 진짜 리더인가? 나랑 홍영식이 다했지' |
| '그저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지오. 상감을 꽉 잡는 것이지오. 옥균이가 어름어름 하다가 상감을 놓쳐서 고만 실패했지요.' |

요약하면 '김옥균 때문에 망했다' 정도로 요약된다.

서재필의 평가

|  |
| --- |
|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은 일본을 너무 믿은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앞뒤 재지 않고 반대만 내세운 일반 민중의 무지몰각 때문이었다. 양(洋)의 동서를 막론하고 민중의 조직이 없고, 잘 훈련된 후원이 없이 다만 몇몇 사람의 선각자만으로 성취된 개혁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한 로마 사람에게 처형되었으나 로마 사람이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를 미워하기는 유대 사람이었다. 즉 그의 동포가 그를 알지 못한 탓이다.' |

9-2. 진짜 이유?

갑신정변의 실패 이유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윤치호의 아버지 윤웅렬이다. 원래 윤웅렬은 군대를 동원해서 갑신정변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일이 틀어지는 것 같자 발을 뺐다. 혹시나 성공할 수 있으니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윤웅렬은 갑신정변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거기에 자신이 엮이는 것을 대단히 경계했다. 그 윤웅렬의 말을 윤치호 일기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1. 임금을 위협한 것은 순(順)한 것이 아니고 역(逆)한 것이니, 실패하는 첫째 이유이다.

제2. 외세를 믿고 의지하였으니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 실패하는 둘째 이유이다.

제3. 인심이 불복(不服)하여 변(變)이 안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니, 실패할 셋째 이유이다.

제4. 청군이 곁에 앉아있는데, 처음에는 비록 연유를 알지 못하여 가만히 있으나 한번 그 근본 연유를 알게 되면 반드시 병대(兵隊)를 몰아 들어갈 것이다. 적은 것으로 큰 것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니, 사소한 일본병이 어찌 많은 청병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실패할 넷째 이유이다.

제5, 설상 김옥균, 박영효 여러 사람이 능히 순조롭게 그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 민씨와 임금께서 친애(親愛)하는 신하들을 죽이었으니 이는 국왕과 왕비전(王妃殿)의 의향을 위배한 것이다. 군부모(君父母)의 뜻을 거스르고 능히 그 위세(位勢)를 지킬 수 있겠는가? 실패할 다섯 째 이유이다.

제6. 만약, 김옥균, 박영효 여러 사람의 당(黨)이 많아서 조정을 채울 수 있다면 혹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두 서너 사람이 위로는 임금의 사랑을 잃고 아래로는 민심을 잃고 있으며 곁에는 청인(淸人)이 있고, 안으로 군부모의 미움을 받고 밖으로 붕당(朋黨)의 도움이 없으니 능히 그 일이 순성(順成)함을 꾀할 수 있겠는가?

|  |
| --- |
| 일이 반드시 실패할 터인데 도리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리석고 한스럽다. 또 우리 부자(父子)를 끌어 들여 같은 무리로 삼으려 하니 두렵다. 그러나 이에 좇으면 역적이 되고 역적이 되면 망하게 되니 가히 진퇴유곡(進退維谷)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삼전(三殿 : 임금, 왕비, 세자) 성위(聖位)께서는 바야흐로 위급한 지경에 놓여 있어 혼자 힘으로라도 난을 구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김씨(김옥균)의 당(黨)이라고 한다. 그것은 내가 형조판서에 제수된 원인이다. 그런 즉 지금의 형세로는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여 해치려고 하니 어찌 두렵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그러하니 우선 이리로 도망쳐 와서 다시 뒷일을 의논하려는 것이다. |

윤치호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  |
| --- |
| 물론 국민 가운데 한 사람도 독립당의 사업을 이해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외다. 첫째로 임금님 몸에 손을 대이어 억지로 정사를 변혁하였다는 것. 둘째 일본과 공모하였다는 것으로 크게 오해를 사서 아주 역적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

사실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는 이 부자의 이야기만으로도 대부분 다 나오고 있고, 실제로 현재의 연구도 저것과 별 차이가 없다.

9. 말로



홍영식 : 고종의 "경들은 날 놔두고 어딜 가는가?"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도망치는걸 포기하고 박영교와 함께 고종을 끝까지 호위하였다. 위안스카이와도 안면이 있었고, 벼슬도 꽤 높은 사람이라서 "죽이진 않겠지" 했던 것 같지만 오조유가 이끈 청군이 고종을 데려가려 하자 이를 만류하던 과정에서 조선군에게 살해당했다. 덤으로 아버지 홍순목은 영의정이었음에도 그 일로 자결한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조.

김옥균 : 일본으로 망명하여 10여년을 방랑하며 지낸다. 10여년 내내 고종이 보낸 자객을 잘 피해다니다, 상하이에서 결국 자객 홍종우에게 리볼버로 살해당한다. 이후 시신은 보존되어 조선으로 돌아오고, 이후 그의 시신은 오체분시를 당하고 머리는 한성에 효수된다.

박영효 : 이후 골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었다. 갑오개혁 중 2차 김홍집 내각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일본의 의도로 귀국. 다시 복권되어 정부에서 일하다가 고종을 몰아내려는 반란 음모를 꾸미다가 걸려서 다시 일본으로 탈출한다. 이후 고종이 싫어하는 인물 순위권에 꼽히게 된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독립 협회에서도 박정양, 윤치호와 더불어 세력이 강했고 '박영효 대통령 음모설'까진 나왔다. 독립협회 주도로 개설된 중추원의 첫 의제였던 대신 추천에서도 한 자리했다. 경술국치 후에는 후작 작위를 받는 등 부유한 친일파로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때 그의 형 박영교는 청군에 의해 홍영식과 함께 참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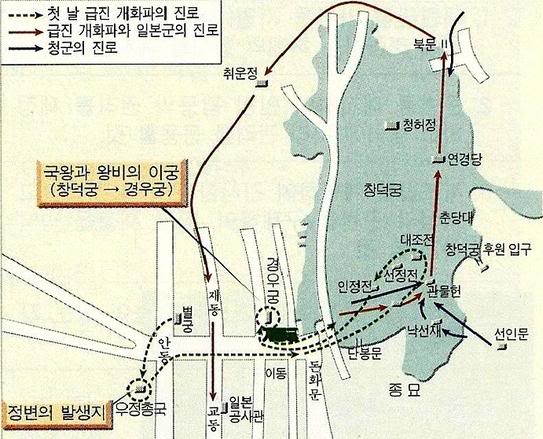
서재필 : 동생 서재창을 비롯한 일가와 집안이 전부 몰락하고 가까스로 도망쳤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나중에 독립협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미국인 필립 제이슨 (Philip Jaisohn)으로 다시 등장한다. 한인 교포들을 위한 지원도 자주 했다.

서광범 :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냉대와 무관심 속에 미국에 호의를 갖게 되어 박영효, 서재필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국에서 막노동으로 돈을 벌어 조선인 최초로 학위를 획득한 뒤 시민권을 취득하고 연방 하급 관료로 일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잠시 귀국해 김홍집 내각에서 사법 개혁을 맡았다. 을미사변 이후 친일파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주미 공사로 파견되었지만 아관 파천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파직되었다. 미국에서 생을 마감한다.

갑신정변은 한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삼일천하 사례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미처 공포도 하기 전에 김옥균의 필두로 한 급진 개화파가 쿠데타의 주역임을 눈치챈 명성황후가 위안스카이에게 원병을 요청해 주둔 중인 1500명의 청국군이 출동하여 12월 6일 오후부터 (만으로는 2일째) 창덕궁을 공격하는 바람에 궁궐은 삽시간에 전쟁터가 되었고, 수적으로 불리한 급진 개화파 세력은 일본 공사가 사전 약속을 어기고 철수하자 일이 틀렸음을 알고 김옥균·박영효 등은 제물포를 거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 와중에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 조선 정부는 훗날 배상금 문제로 한성 조약을 체결한다. 더 나아가서는 청의 간섭이 심해졌고 일본과의 알력 다툼이 심해져 훗날 청일전쟁의 불씨가 된다.

5. 갑신정변

1884년 12월 4일 저녁 6시, 급진 개화파는 우정국 연회가 열릴 즈음 사전에 준비한 폭탄으로 혼란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폭탄이 불발되자, 이웃집에 불을 질러 혼란을 일으킨 다음 사전에 포섭한 자객들로 사대당 요인 암살을 시도했지만 정작 민영익만 중상 입히는 수준으로 끝났다. 사실 민영익은 개화파 핵심 멤버들과 절친한 사이였다. 죽동에 있던 민영익의 집은 개화파들이 모이던 곳이기도 했다. 민영익이 사대당으로 기울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 결국 미국에 보빙사로 함께 가기까지 했던 홍영식은 사사로운 정을 저버릴 수 없어 부상 당한 민영익을 묄렌도르프와 함께 묄렌도르프의 집으로 옮긴다. 그리고 묄렌도르프는 민영익을 한 미국인 의료 선교사의 집에 데리고 가는데... 그 의사가 바로 드라마 제중원에 나오는 호러스 뉴턴 알렌이다. 당시 민영익은 과다 출혈로 사경을 헤메이고 있던 터라 알렌이 없었다면 죽었을 것이다.. 여하간 이후 민영익은 큰 배신감을 느껴 김옥균 등 개화파와 철천지 원수가 된다. 한편 알렌은 이 일로 고종의 눈에 띄어 한미 외교, 선교, 의료 활동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동시에 고종을 엿먹이게 된다. 

당시 정변의 전개 양상을 표현한 지도. ~~사실 급진 개화파가 짧은 시간 내에 뛰어갔던 길을 측정하거나 실제로 걸어 보면 상당히 멀다. 축지법을 써도 기분 30분 ~ 40분(…). 자기들 목숨이 걸린 일이니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던 듯.~~  
급진 개화파들은 바로 창덕궁으로 달려가 고종에게 사대당과 청군이 변을 일으켰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왕을 경우궁으로 옮긴 후 일본군200명과 개성 유수였던 박영효가 이끄는 군대와 그들 휘하의 별기군 50명으로 하여금 궁을 호위케 한 다음, 본래 우정국 연회 장소에서 처리하려다 실패한 사대당 요인인 한규직·이조연·윤태준을 죽이고 이어서 입궐하던 왕실 척족 세력인 민영목·민태호·조영하를 죽였다.

6. 정강 14조와 내각 개편

이튿날인 12월 5일 개화파는 정강 14조와 새 인사를 발표했다.

|  |
| --- |
| 1. 청에 잡혀 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4. 내시부를 폐지하고 그 중에 재능 있는 자만을 등용한다. 5. 전후 간사한 관리와 탐관오리 가운데 현저한 자를 처벌한다. 6. 각 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0.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 정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이것을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

흥선대원군 계열과도 일부 교섭하여 영의정에 이재원·좌의정에 이재선·병조판서에 이재완(李載完) 등의 종친이 임명[21]됨과 동시에 대원군의 장남 이재면을 의정부좌찬성 겸 우참찬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핵심 요직은 개화파였다. 우의정에 홍영식·형조판서에 윤웅렬·전후양영사(前後兩營使) 겸 한성 판윤에 박영효·이조판서 겸 홍문관제학에 신기선(申箕善)·좌우 양영사 겸 서리 외무 독판에 서광범·외무 아문 참의에 윤치호, 승정원 도승지에는 박영교 등이 임명되었다. 갑신정변의 전위대로 나서 공을 세운 서재필은 병조 참판 겸 정령관으로 임명하여 정부의 군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였다. 헌종의 계비 효정 왕후의 조카이며 동시에 홍영식의 집안사람인 홍순형도 공조판서로 임명되었다. 그밖에 온건 개화파로 정변에 반대하지 않던 김홍집을 한성부 판윤으로, 김윤식을 예조판서로 임명하였다.

김옥균은 호조 참판이 되어 국가의 재정을 책임졌다. 급진 개화파들은 각국에게 신 정부의 수립을 통고하는 한편, 신 정부를 구성하고 혁신정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14개 항목을 내세웠다. 그 중의 첫 대목은 청나라와의 종주 관계를 폐지하고 대원군을 귀국시킨다는 대목이었다. 그 외에는 문벌 개혁(신분제 철폐), 환곡 폐지, 의정부와 6조, 특히 호조 중심의 재정 관할, 규장각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3. 정변 주도 세력의 인적 구성

조선 후기에 봉건 체제의 틀을 깨트리고 자본주의 및 근대 사회로 나아가려는 사상을 가진 급진 개화파들(일부 중인 출신 지식인 및 양반들)이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뭉치게 되었다. 급진 개화파들은 낡은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고 세계 정세에 맞추어 조선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들은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2], 서재필, 서재창, 이규완, 유혁로, 정난교, 신응희, 박영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서구 사회에 관한 문명 서적을 통해서 실학 사상의 긍정적 요소와 세계 정세의 흐름 및 자본주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조선 사회의 개혁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평균 나이 25도 안 되는 그야말로 엘리트 열혈 청년들이었다. 김옥균이 유일하게 30대였으며, 서재필은 19세. 이들은 자신들을 개화당으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세력을 수구당이라고 불렀다.

개화파는 개항 후 전개되는 나라 안팎의 정세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지를 모으는 한편, 개혁 운동의 수단으로써 당시 서구의 근대 문물에 관심을 표명하던 고종에게 적극 접근하였다. 이의 결과물로 조선 정부의 일본 수신사 및 조사 시찰단에 적극 참여하였다.

급진 개화파의 쿠데타.

(1)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민씨 정권의 핵심 인사 (민태호 등) 제거, 왕과 민비 신병 장악

(2) 14개조 개혁안 발표 (실제로는 80여개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고종의 조서는 바로 폐기되었고 김옥균이 쓴 갑신일록에는 14개조만 전해짐)

주축 인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갑신정변의 경과

★ 갑신정변의 내용

(1) 정치: 조선 정부의 자주성 천명, 청의 종주권 부인, 대원군의 귀국 요구, 입헌군주제 지향, 4영으로 군제 개편

(2) 경제: 재정의 일원화 (호조로), 지조법의 개혁(토지 개혁이 아닌 세금 개혁), 혜상공국 혁파, 환곡제 폐지

(3) 사회: 신분제 폐지 주장, 규장각 폐지 주장

(4) 청나라의 갑신정변 진압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감)

(5) 민중들의 일본 공사관 공격 → 한성조약 (배상금 지불, 1885)

★ 갑신정변의 한계

① 외세(청)를 막기위하여 또다른 외세(일본)을 끌어들임. 즉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아님

② 국가의 제일 중요한 국방문제 언급 자체가 전혀 없음

③ 백성들의 토지개혁 문제가 전혀 없음 (민중의 지지를 전혀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

2. 텐진조약 (1885) :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양국 공동 철군, 군 개입시 통보) - 이 텐진조약이 9년뒤 조선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1884년(갑신년)에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가 서구식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 고종 부부의 신병도 확보했고 과단성 있는 숙청에 비해 허무하게도 삼일천하로 끝났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급하게 일처리를 하다보니 청나라 군을 막아주기로 했었던 일본의 뒷통수에 한계를 노출했다. 현재 조계사 자리인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방아쇠를 당겼다.